



글로벌 재보험 현황 및 향후 전망

이선주 연구원

여약

전 세계적으로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함에 따라 지급여력 확보 및 효율적인 보험리스크 전가를 위해 재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최근 재보험시장은 재보험의 초과공급에 따른 경쟁 심화로 중형 재보험사들 간의 신설합병과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본구조 및 상품 다각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원보험사들의 저성장으로 재보험시장의 출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리스크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함에 따라 지급여력 확보 및 효율적인 보험리스크 전가를 위해 재보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¹⁾

- 재보험은 대재해 리스크 및 복잡한 리스크의 효율적인 전가, 요구자본 감소를 통한 지급여력 확보, 손익 변동성 완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McKinsey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보험산업에서 재보험사가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냄
 - 2011~2015년 기간 동안 재보험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이익을 창출한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손실을 기록함²⁾

■ 최근 재보험시장은 재보험의 초과공급(oversupply)³⁾에 따른 경쟁 심화로 중형 재보험사들 간의 신설합병(consolidation)과 글로벌 재보험사⁴⁾의 자본구조 및 상품 다각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1) McKinsey&Company(2017. 9), "Global reinsurance: Fit for the future?"
 2) 5년간 평균 경제적 이익(Economic Profit)의 구체적 규모는 재보험사 2억 4천 4백만 달러 이익, 손해보험사 2천 7백만 달러 이익,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사 8천 7백만 달러 손실을 기록함
 3) 글로벌 재보험사뿐만 아니라 로컬 재보험사의 경우에도 아시아, 중남미 등의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려 함으로써 초과공급 현상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재사(원보험자)가 우위에 있는 형태로 연성시장(soft market)이라고도 함
 4) 본고에서는 재보험사를 특성에 따라 글로벌 재보험사(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Berkshire Hathaway, Scor SE, Lloyd's, Partner Re), 로컬 재보험사(China Re, Korean Re, Mapfre Re, GIC Re, Toa Re 등), 특화 재보험사(Reinsurance Group of America, Everest Re, MS&AD incl. MS Amlin, Alleghany/Trans Re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

- 최근 Montpelier-Endurance, Platinum-RenRe, XL-Catlin과 같이 중형 재보험사들 간의 신설합병이 추진되는 추세임
 - 신설합병을 통해 재보험사의 규모가 커지면 인수능력이 증대됨으로써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보험 및 자본시장으로의 리스크 전가를 통해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
 - 또한, 규모가 큰 재보험사일수록 신흥리스크 및 디지털 기술 등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함
 - Munich Re, Swiss Re, SCOR, Hannover Re, Partner Re와 같이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는 최근 연성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각화된 재보험사는 Solvency II와 같은 환경에서 자본구조 다각화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⁵⁾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상품 및 시장규모 조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가능함
 - 또한, 원보험자의 니즈에 대응하여 다년(multi-year)계약 상품이나 다른 지역 및 상품을 단일한도(single limit)로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 편리한 윈스톱쇼핑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원보험사들의 저성장으로 재보험시장의 출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리스크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손해보험 재보험은 기후변화, 재난 위험지역의 인구집중, 기술발전에 대한 리스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의 협력 및 경험 데이터가 없는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은 1968년 시작된 이래 최초로 10억 달러의 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기타 국가에서는 재해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정부와 재보험사 간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
 - 원보험자가 기술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IoT, AI의 보장을 위한 신상품 개발 시 재보험사는 과거 손실 경험 데이터가 없는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 재보험사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채널 및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장수리스크 증가 및 규제변화로 인해 재보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재보험사는 새로운 디지털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약 회사, 헬스케어 회사 등과 협력하여 하이브리드 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장수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 재보험 활용이 증가할 것이며,⁶⁾ Solvency II와 같은 규제 변화에 따라 위험분산, 자본관리 수단으로 재보험 활용이 기대됨 **kiri**

5) 상위 5개의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한 재보험사는 포트폴리오상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형태의 자본구조 다각화로 인한 이익이 30%라고 보고함

6) 재보험 및 스왑을 통한 장수리스크 전가의 규모는 2009년 100억 달러에서 2015년 5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